

관광산업의 지역별 회복력 분석: 4R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김아진 동의대학교 호텔·컨벤션경영학과 박사수료, 부산연구원 문화·복지연구실 연구원

윤태환 동의대학교 호텔·컨벤션경영학과 교수, 교신저자(E-mail: thyoon@deu.ac.kr)

국문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나타난 국내 관광산업의 지역별 회복력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Bruneau et al.(2003)의 회복력 측정 지표 4R, 신속성, 강건성, 자원동원성, 대체성 지표를 중심으로 국내 17개 시도의 지역별 지수를 산출하고 Z-score로 전환하여 하현상·이석환(2016)의 연구의 회복력 경로 중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 분류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회복력 경로에서 Path 1은 신속성과 대체성 지수가 Path 3는 자원동원성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둘째, 지역별 경로 분류에서 동일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수별로 상이한 경로에 속하는 경우가 존재하여 회복역량이 단일 전략으로 설명되기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회복력 경로에 영향을 미친 구체적인 정책적 요인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하며, 향후 사례연구와 회귀분석을 통한 후속 연구 보완이 필요하다.

주제어: 코로나19, 관광산업, 지역별 회복력, 4R 프레임워크, 회복경로

An Analysis of Regional Resilience in the Tourism Industry: Applying the 4R Framework

Kim, Ah-jin

Ph. D. Candidate, Department of Hotel & Convention Management, Dongeui University

Researcher, Department of Cultural Welfare Research, Busan Development Institute

Yoon, Tae-Hwan

Professor, Department of Hotel & Convention Management, Dongeui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regional disparities in the resilience of the Korean tourism industr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By applying the 4R resilience framework (Rapidity, Robustness, Resourcefulness, and Redundancy) proposed by Bruneau et al. (2003), we calculated the resilience indices for provinces across Korea. These indices were converted into Z-scores to categorize the regional recovery patterns into three distinct resilience trajectories based on the framework of Ha and Lee (2016).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resilience paths, Path 1 was strongly associated with Rapidity and Redundancy, while Path 2 and Path 3 were characterized by Resourcefulness and Robustness, respectively. Second, the analysis revealed that even within the same region, different indices often followed divergent paths, suggesting that resilience capacity cannot be addressed through a single uniform strategy. Despite these insights,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in identifying specific policy factors that influence resilience trajectories. Future research should complement these findings through case studies and regression analyses to elucidate the critical determinants of regional resilience disparities.

Keywords : COVID-19, Tourism Industry, Regional Resilience, 4R Framework, Recovery Path

I. 서론

코로나19는 글로벌 경제 중에서도 특히 관광 분야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Mariolis et al. 2021). 코로나19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례 없는 관광 위기로 이 기간 동안 관광객 유입이 거의 중단되었으며, 관광사업체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백신 개발과 함께 코로나19가 관리 가능한 감염병으로 인식되면서 국제 이동 제한 조치가 폐지되었고, 항공·크루즈 등 국제 관광 교류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관광산업이 회복 국면에 진입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관광객 수와 관광사업체 매출액 등 통계수치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인 2020년에는 관광객 수치가 급락하였으며, 코로나19가 회복 국면에 진입한 후인 2024년부터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치로 거의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2025)에 따르면 국내 입국 외래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이후 크게 감소하였으나, 2024년에는 약 1,637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약 1,750만 명의 93.5%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며, 2025년에는 1,870만 명을 돌파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국민 해외관광객 또한 2024년에는 약 2,872만 명으로 2019년 약 2,871만 명의 99.4% 수준이었으며 2025년에는 약 2,958만 명으로 높은 회복세를 보였다. 관광산업 매출액 역시 2024년에는 27조 6,011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매출액 26조 8,138억 원을 상회하여 회복하였다. 특히 관광숙박업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체 관광산업의 회복을 이끌었으며, 이어서 여행업, 국제회의업 순이었다. 지역별 매출액 비중은 서울이 39.2%로 가장 많았고, 강원 13.2%, 경기 9.5%, 제주 8.9%, 부산 7.2% 순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25).

국내 관광산업은 코로나19라는 큰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약 5여 년의 시간동안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거쳤다.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충격을 완화하며 본 성장궤도로 복귀하는 일련의 과정을 회복력(resilience)이라고 한다. 회복력에 관한 연구는 기존에 물리학, 공학, 경제학, 도시계획학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관광 분야에서도 다수 이루어져 왔다. 관광 분야에서 코로나19 위기 이후 관광산업의 회복력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김재영 외(2021)가 코로나19 이후 국내 관광산업 생태계의 회복력 측정 지표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AHP 분석을 실시하였고, 김도훈 외(2022)는 ARIMA 모형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이후 외래관광객 수요예측을 세 가지 회복 시나리오로 제시하였다. 권장욱(2025)은 코로나19 이후 여행업의 회복력을 4가지 지수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전체 관광수요와 산업 측면에서 회복력을 분석하였으며, 지리적인 측면에서 지역별로 차이를 분석하고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복하는 양상이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위기 상황에 따른 회복력은 지역마다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회복력의 유형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임석희·송주연(2022)은 회복력이 지역에 내재된 주체들의 역량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지역의 회복 속도 차이는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지역의 경기 위축과 회복을 반영하기 때문에 큰 함의를 가진다고 하였다. Martin et al.(2016)은 부정적 상황으로 인한 지역의 회복력 차이가 단순히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위기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별 회복력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은 지역별 불균등한 발전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떠한 경제 위기 못지않으므로 그 충격이 도시와 지역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도시 및 지역경제의 대응 차원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역의 중장기적 성장경로와 국토 공간의 불균등한 지역발전을 가늠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이다(임석희·송주연 2022).

이에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한 회복력 측정 지표를 활용하여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시점부터 최근까지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관광산업에서의 지역별 회복력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Bruneau et al.(2003)이 제안한 회복력 측정 지표 4R 프레임워크인 신속성(Rapidity), 강건성(Robustness), 자원동원성(Resourcefulness), 대체성(Redundancy)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적 회복력의 차이를 보다 다차원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산업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코로나19가 발생하기 바로 직전 시점인 2019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통계데이터인 2024년까지의 지역별 지수를 산출하여 회복력 경로 패턴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별 회복력 추세를 분석하고 지역별 차이와 지역 관광산업의 내재된 역량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관광산업에서의 회복력(resilience)의 개념과 선행 연구

회복력(resilience)은 라틴어로 ‘resiliere’ 또는 ‘resilio’로 ‘되살아나다’, ‘원래대로 되돌아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영어 발음 그대로 ‘레질리언스’, ‘리질리언스’로 부르기도 하며, ‘회복력’, ‘회복가능성’, ‘회복탄력성’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하현상 외 2014), 본 연구에서는 ‘회복력’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회복력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은 Holling(1973)으로 “생태학적 시각에서 자연적 및 인위적 재난이나 환경 변화로 위기에 처했을 때, 해당 충격을 흡수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회복력을 정의하였다.

하현상 외(2014)는 회복력을 “사회환경시스템의 하부체계들이 충격을 흡수하고 재조직화를 통하여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회복력은 공학, 생태학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도시계획학, 심리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 폭 넓은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재난, 전염병 등으로 삶의 현상이 위협받는 상황에 더욱 잘 적용될 수 있다(Cutter et al. 2008; Burton 2012).

관광산업에서 회복력은 관광지, 관광조직, 지역사회가 충격과 위기를 견뎌내고 적응하며 회복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코로나19가 사회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학계와 실무에서 회복력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진행된 관광 분야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Sharma et al.(2021)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관광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회복력 기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그는 포괄적 회복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 대응, 기술 혁신, 지역적 소속감, 소비자 및 직원의 신뢰 4가지 요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Gera and Kumar(2023)는 코로나19 동안 관광객의 심리적 반응, 기업 및 정부의 협력, 커뮤니케이션 및 혁신이 팬데믹 이후 관광지의 생존, 회복 및 회복력에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국내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회복탄력성 연구(이윤주·이애주 2016; 김정남 2017; 박민희 2019; 조원섭·박슬기 2020)가 주를 이루었으며, 관광산업 전체의 거시적인 회복력을 다룬 연구는 일부 이루어졌다. 김도훈 외(2022)가 계량 경제학 모델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회복 이후 방한 외래관광객 유입 추이를 ARIMA 분석을 활용하여 회복탄력성을 수치화하였는데 과거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다중 개입 모형을 설정하고 각 위기의 개입 효과에 따른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MERS, SARS 순으로 방한 외래관광객에 대한 충격이 크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김재영 외(2021)는 관광산업 생태계 회복력을 구성하는 차원으로 4R을 제시하고 산업, 사회, 경제적 관점으로 AHP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를 제시하였으며, 권장욱(2025)은 코로나19 팬데믹 후 여행업의 회복력을 4R 지표별로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2. 회복력의 측정 지표 4R

지역사회의 회복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속성(attribute)으로 이는 회복력의 질적인 측면(quality)을 결정한다(Norriss et al. 2008; 하현상 외 2014). 회복력의 속성을 분석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프레임워크는 Bruneau et al.(2003)이 제시한 4R로 신속성(Rapidity), 강건성(Robustness), 자원동원성(Resourcefulness), 대체성(Redundancy)을 의미한다. 4R은 2000년부터 지진에 대한 지역사회 회복력을 측정하기 위해 MCEER(Multidisciplinary Center for Earthquake Engineering Research)과 연구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개념화되기 시작하여 Bruneau et al.(2003)과 Tierney and Bruneau(2007)에

의해 개념이 정립되었으며, 4R 회복력을 단순히 충격 후의 복구로 보지 않고 시스템이 충격을 흡수하고 신속하게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다차원적 역량으로 정의했다.

국내에서도 4R을 활용하여 회복력을 평가하는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는데, 김동현 외(2020)는 국가 기반시설 계획단계에서 회복력을 4R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주민지(2023)는 지역사회 재난 리질리언스 구성요소와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4R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관광 분야에서 4R의 활용하여 회복력을 분석한 연구로는 김재영 외(2021)가 관광산업 생태계 회복력을 구성하는 차원으로 강건성, 대체성, 자원동원성, 신속성을 제시하고 산업, 사회, 경제적 관점으로 각각 측정문항을 구성하여 AHP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외적 충격에도 손상 없이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인 강건성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었으며, 이어서 기술적·인적·재무적 정보·자원을 조직화하여 활용하는 능력인 자원동원성으로 나타났다. 권장욱(2025)은 코로나19 팬데믹 후 여행업의 회복력을 분석하기 위해 Tierney and Bruneau(2007)가 제시한 네 가지 하위 요인인 신속성, 강건성, 자원동원성, 대체성 4가지 지수를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산업조사」에서 제공하는 여행업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각 지수별로 나타난 회복력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4R의 개념에 대해 ‘신속성(rapidity)’은 손실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기능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복구하는 역량으로 특히 급진적 재난 상황에서 많은 중요성을 갖고 있는 속성이라고 하였다(하현상 외 2014). Bruneau et al.(2003)은 “손실과 향후 기능 저하를 막기 위해 빠른 시간 안에 우선순위를 충족시키고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을 신속성으로 정의하였다. Norris et al.(2008)은 신속성을 “자원이 얼마나 빠르게 확보 가능하고 활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역량”으로 보았다. 신속성은 재난 발생 후 대비 단계부터 재난 발생 이후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복구를 실시하는 등 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강건성은 대부분 “시스템 및 시스템의 하위 요소와 다른 분석단위가 재난의 힘에 의해 중대한 기능 저하나 상실 없이 견디는 능력”으로 정의한다(Bruneau et al. 2003; 하수정 외 2014; 하현상 외 2014; 하현상·이석환 2016; 주민지 2023). Howell(2013)은 강건성이 충격과 위기를 흡수하고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신뢰성의 개념을 내포한다고 보았다. 강건성이 높다는 것은 충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지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건성이 높다면 위기가 발생한 시점부터 그 충격으로 지역사회 시스템이 최저 수준에 이르는 시간이나 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높은 강건성은 피해 규모를 줄여주기 때문에 복구 단계에서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어 빠른 복구가 진행되도록 한다. 재발을 방지하고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복구 단계에서도 강건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하현상 2013).

자원동원성은 문제를 진단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자원, 재원, 정보 등을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동원하여 해결해 나가는 역량으로 정의되어 왔다(Bruneau et al. 2003; Norris et al. 2008; How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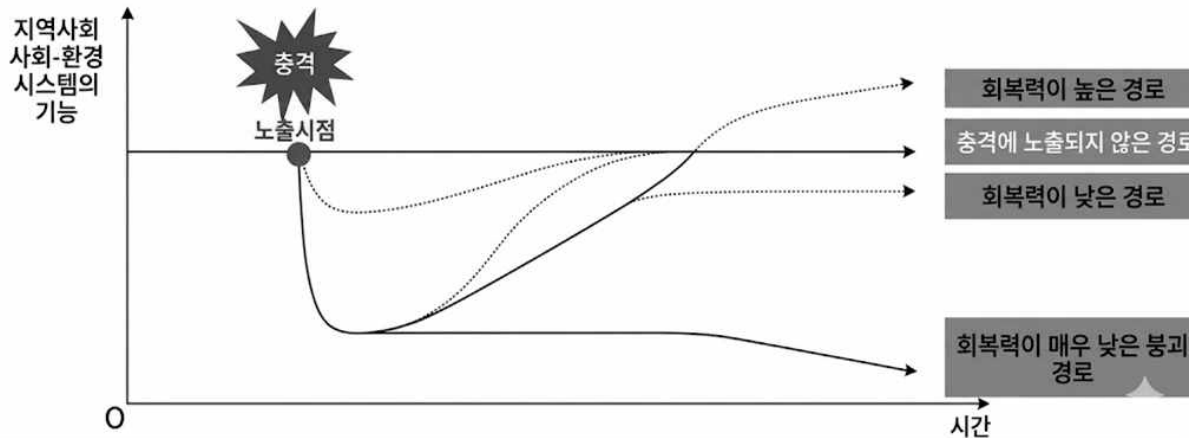
2011; Howell 2013; 하현상 외 2014; 하현상·이석환 2016). 자원동원성은 각종 자원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융통성 있게 배치하여 원활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노력을 포함하고 있으므로(하현상·이석환 2016) 신속성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개념이다. 자원동원성은 재난의 위험이 존재하거나 충격이 발생했을 때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고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재난 시스템의 다양화와 여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초점을 맞추는 대비 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며, 특히, 대응 단계와 복구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대체성은 ‘시스템이 중대한 기능 저하나 상실 발생했을 경우 기능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체 가능한 역량’으로, 잉여와 다양성이라는 속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Bruneau et al. 2003; Norris et al. 2008; 전대욱 2015). 대체성은 핵심 인프라와 제도의 다양화 또는 중첩을 통하여 재난 발생에 대비한 여분의 역량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예방과 대비의 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예방 단계에서의 대체성은 대비나 복구 단계에서의 내구성과 자원동원성을 제고시키는 핵심적 역량이 되는 한편, 대응 단계의 신속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등 4R의 다른 요소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대체성은 지역사회 재난 시스템의 다양화와 여력 확보로 기능 파괴를 최소화하여 복구 활동을 더욱 용이하게 만든다(하현상 2013).

Bruneau et al.(2003)은 4R 중 신속성과 강건성은 회복력 향상 조치를 통해 달성되어야 할 최종목적으로 자원동원성 및 대체성은 회복력이 향상될 수 있는 수단과 조치들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고 하였다. 하현상·이석환(2016)은 지역사회가 이들 네 가지 구성요소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사회의 회복력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지역사회 시스템이 높은 회복력을 갖추고 있다면 충격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고, 충격에 노출되더라도 강건성이 높다면 시스템이 많이 저하되지 않을 것이며, 강건성이 약하여 시스템이 저하되더라도 신속성, 자원동원성, 대체성이 높다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 시스템이 4R을 잘 갖추고 있어서 회복력이 높다면 위기에 대한 대응과 복구가 빠를 뿐만 아니라 향후 혁신을 통하여 더 발전된 사회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은 하현상·이석환(2016)이 지역사회 회복력의 구성요소인 4R의 효과로 ‘회복력이 높은 경로’, ‘회복력이 낮은 경로’, ‘회복력이 매우 낮은 붕괴 경로’ 3가지로 나타낼 수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1] 지역사회 회복력 구성요소(4R)의 효과



출처: 하현상·이석환(2016, 108)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Ⅲ.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1. 연구설계

회복력의 경우 정성적, 정량적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김영근(2018)은 정량적 연구의 경우 취약지역과 취약 원인을 평가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회복탄력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회복력에 대한 정량적 연구로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한다. 첫 번째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산업조사」의 2015~2024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근 10개년 간 관광사업체 매출액 추이를 분석하고 코로나19 위기 시점에 실제로 매출액의 변동이 있었는지를 우선적으로 분석한다. 두 번째로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한 회복력의 4R 지표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는데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여행업의 회복력을 분석한 권장욱(2025)의 연구에서 제시한 지수 산출식을 활용하여 지역별 회복력 지수를 도출한다. 세 번째로 하현상·이석환(2016)이 제시한 회복력의 경로 3가지 중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 도출된 지역별 회복력 지수를 가지고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한다.

2. 분석자료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산업조사」는 2006년부터 조사·발간되었으며, 관광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평가, 학계 및 연구소의 학술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은 「관광진흥법」상 등록·허가·신고·지정된 관광사업체 및 관광산업 특수분류의 핵심관광산업으로 분류된 사업체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산업조사」 2015~2024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중분류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의 업종별 분석이 아닌 대분류의 관광사업체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지역 단위 관광 생태계 전반의 거시적 회복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표 1] 관광사업체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관광 사업체	여행업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호텔업, 기타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전문 및 종합휴양업, 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국제회의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카지노업	-
	유원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관광유희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희업,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게도업, 관광면세업, 관광지원서비스업

출처 : 국가통계포털(www.kosis.co.kr)

3.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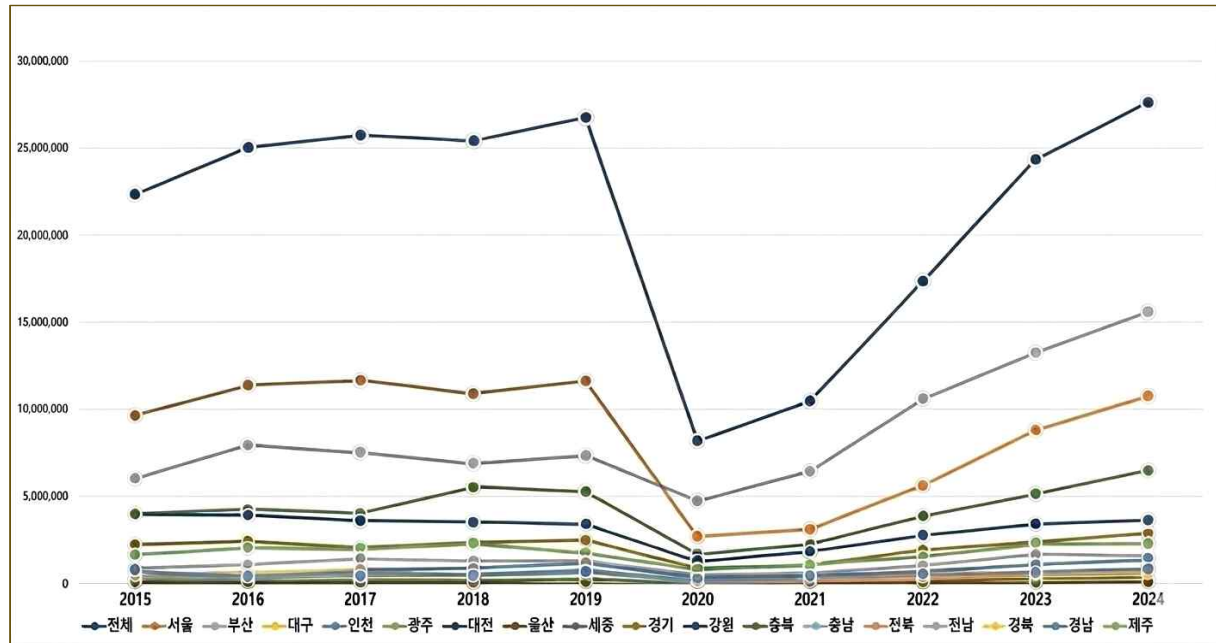
1) 분석의 시기 설정

관광사업체 매출액은 해당 업체가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 판매를 통해 얻는 총수입을 의미하며, 이는 관광산업의 경제적 성과와 중요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이다. 관광사업체 매출액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관광산업의 현황과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사업체의 매출액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015~2024년 10년 간의 관광사업체 매출액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그림 2]와 같이 관광사업체의 매출액은 2015년부터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0년 1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2월에 국내 대규모 유행이 시작된 이후 매출액이 급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하여 2023년에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치를 근접하게 회복하는 양상을 보여주며, 2024년에는 2019년 수치를 상회하여 회복하였다. 전체적으로 하현상·이석환

(2016)이 제시한 회복력 경로 중에 충격을 받기 전 시점보다 다소 높게 회복하여 회복력이 높은 경로에 해당하였으며, 지역별로 회복력의 정도에 차이를 보이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관광사업체 연간 매출액 추이(2015~2024년)



2) 분석방법

(1) 지역별 관광회복력 4R 지수 산출

최근 10개년의 자료를 통해 관광사업체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급격하게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하락 이후 다시 회복하는 추세를 분석하고자 하므로 4R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지수별 분석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9년부터 최근 데이터인 2024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 지표는 [표 2]와 같이 권장욱(2025)의 연구에서 제시한 관광산업 여행업의 4R 산출계산식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권장욱(2025)의 측정 지표는 본 연구와 같은 시기인 코로나19 전후 시기인 2019~2023년 동안 같은 「관광산업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확장 측면에서 유용하다고 판단되어 활용하였다. 권장욱(2025)의 연구는 관광업종 중 여행업의 회복력을 4R 지수별로 분석한 반면, 본 연구는 지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지역별 차이를 분석한 것이 차이점이다.

[표 2] 지역별 관광사업체 회복력 지수 세부 측정 지표 구성

항목	측정 지표	측정 방법
신속성 (rapidity)	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	사업체 수의 증가율 매출액의 증가율 종사자 수의 증가율
강건성 (robustness)	상대적 사업체 수 상대적 매출액 상대적 인력 수준	지역 사업체 수 / 전국 사업체 수 지역 매출액 / 전국 매출액 지역 종사자 수 / 전국 종사자 수
자원동원성 (resourcefulness)	재무자원 인적자원	평균 시설투자비(1개소당) (인력 채용 - 퇴직) / 총 종사자 수
대체성 (redundancy)	기술적 대응 고객 수요	온라인 거래실시 사업체 수 연간 이용객 수

주 : 권장욱(2025)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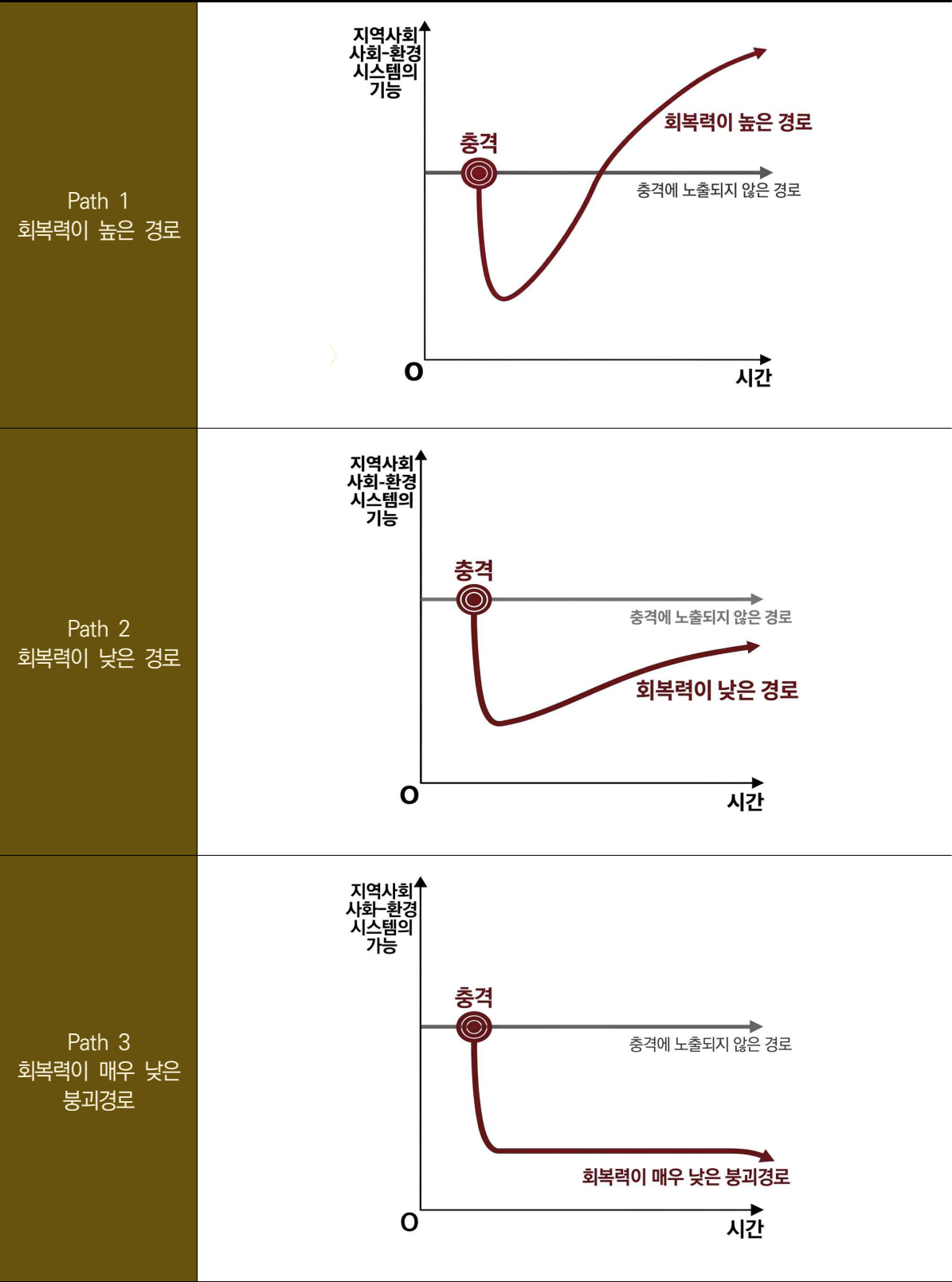
신속성은 빠른 시간 안에 손실을 회복하는 역량으로 측정 지표는 회복 여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로 구성하였다. 강건성은 외부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 능력으로 전국과 대비하여 지역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상대적 사업체 수, 상대적 매출액, 상대적 인력 수준으로 구성하였다. 자원동원성을 측정하기 위한 재무자원은 평균 시설투자비를 가지고 측정하였고, 인적자원은 채용 인력과 퇴직 인력, 총 종사자 수를 가지고 인력의 충원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대체성은 기술적 대응과 고객 수요로 구성하였으며, 기술적 대응은 온라인 거래실시 사업체 수로 고객 수요는 연간 이용객 수를 가지고 측정하였다.

세부 측정 지표를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Z-score로 표준화한 후, 항목 내 지표들의 산술평균을 산출하여 항목별 지수를 도출하였다. Z-score는 각 지표의 관측값에서 평균값을 뺀 후 표준편차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하였으며 동일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Z = \frac{X - \mu}{\sigma} \quad X : \text{관측값} \quad \mu : \text{평균값} \quad \sigma : \text{표준편차}$$

Z-score의 값이 양수(+)이면 해당 데이터값이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음수(-)이면 해당 데이터값이 평균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0에 가까울수록 해당 데이터값이 평균과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절대 값이 클수록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절대 값이 2 이상이거나 3 이하이면 해당 데이터는 이상치로 간주될 수 있다.

[표 3] 관광회복력 경로 설정



(2) 지역별 관광회복력의 경로 설정

지역별 관광회복력의 4R 지수를 가지고 지역별 특성에 대한 분석을 하기위해 회복력의 경로를 선행 연구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하현상·이석환(2016)의 지역사회 회복력의 구성요소인 4R에 따라 ‘회복력이 높은 경로’, ‘회복력이 낮은 경로’, ‘회복력이 매우 낮은 붕괴 경로’로 설정하였다. 원점으로 회복하는 경우는 공학적 회복력의 개념과 일치하는 상황으로 사회경제시스템에서는 보기 드문 경우이므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하현상·이석환(2016)의 연구를 참고하여 회복력이 매우 높은 경로인 Path 1, 회복력이 낮은 경로인 Path 2, 회복력이 매우 낮은 붕괴경로인 Path 3으로 분류하였다. 회복력 지수가 등락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로 분류는 2019년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가장 최근인 2024년 수치와 비교하였다. 2019년 대비 2024년 수치가 상회하는 경우는 회복력이 높은 경로 Path 1으로 설정하며, 2019년 수치까지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충격 이후 반등하여 점차 회복하여 2024년 수치가 2019년의 절반 이상으로 회복한 경우는 회복력이 낮은 경로 Path 2로 설정하였다. 2024년 수치가 2019년의 절반 이하인 경우는 회복하지 못하고 더욱 하락하며 침체되는 회복력이 매우 낮은 붕괴경로 Path 3으로 설정하였다.

지역별로 2019~2024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4R 지수 값을 산출하고,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치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인 2024년 수치를 비교하여 Path 1, 2, 3 중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으며, 종합하여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V. 분석결과

1. 지역별 관광회복력 4R 지수 분석

1) 신속성 지수

신속성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손실을 복구하는 역량으로 하현상(2014)은 급진적 재난상황에서 특히 많은 중요성을 갖고 있는 속성이라고 하였다. 신속성 지수는 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를 가지고 측정하였다. 지역별 신속성 지수는 2019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들이 양(+)의 값을 보였으나,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2022년 기간에는 모든 지역이 음(-)의 값으로 전환되며 큰 하락을 보였다.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인 2023년에는 울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다시 양(+)의 값으로 반등하며

신속성이 크게 개선되는 V자형 회복 형태를 보였다. 2024년에는 대다수 지역이 2019년의 지수를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하여 신속성 지수에서는 회복력이 매우 높은 양상을 보였다.

회복력 경로별로 지역을 분류한 결과, 충격 이전보다 더 높은 상승을 기록한 회복력이 높은 경로인 Path 1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총 13개 지역이 해당되었다. 이 중에서도 세종, 인천, 광주는 큰 폭의 상승을 보여 회복력이 높게 나타났다. 회복력이 낮은 경로인 Path 2에 해당하는 지역은 울산, 충남, 제주 3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울산의 경우 2019년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나 코로나19 이후 2020~2021년에 급격하게 하락한 후 점진적으로 회복하였으나 2024년에 2019년의 절반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그쳤다. 충격으로 낮아진 다음 다시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는 회복력이 매우 낮은 붕괴 경로인 Path 3에 해당하는 지역은 대전으로 나타났다.

[표 4] 지역별 신속성 지수 분석

지역	연도						경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서울	0.946	-0.959	-0.770	-0.344	0.179	0.948	Path 1
부산	0.257	-0.833	-0.755	-0.642	0.927	1.045	Path 1
대구	0.559	-0.257	-0.967	-0.412	0.242	0.835	Path 1
인천	0.306	-0.207	-0.500	-1.041	0.245	1.197	Path 1
광주	0.900	-0.953	-1.047	-0.275	0.264	1.111	Path 1
대전	1.037	-0.416	-0.958	-0.446	0.460	0.323	Path 3
울산	1.218	-0.479	-0.657	-0.579	-0.080	0.578	Path 2
세종	-0.209	-0.857	-0.775	-0.478	0.743	1.576	Path 1
경기	0.475	-0.613	-1.007	-0.272	0.322	1.094	Path 1
강원	0.110	-1.380	-0.413	-0.133	0.926	0.891	Path 1
충북	0.149	-1.407	-0.246	0.450	0.350	0.704	Path 1
충남	0.711	-1.115	-0.638	-0.163	0.648	0.556	Path 2
전북	0.561	-1.096	-0.421	-0.269	0.438	0.787	Path 1
전남	0.458	-1.032	-0.431	-0.406	0.568	0.844	Path 1
경북	0.135	-1.336	-0.699	0.382	0.528	0.990	Path 1
경남	0.451	-1.022	-0.468	-0.419	0.388	1.071	Path 1
제주	0.871	-1.069	-0.787	-0.495	0.718	0.762	Path 2

2) 강건성 지수

강건성 지수는 외부 충격에 얼마나 잘 버티는가를 나타내는 지수로 상대적 사업체 수, 상대적 매출액, 상대적 인력 수준을 가지고 산출하였다. 신속성 지수가 뚜렷한 V자형 반등을 보인 것과 달리 강건성 지수는 지역별로 회복의 시점과 방향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다. 2024년에 일부 지역은 충격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대다수의 지역은 여전히 침체가 심화되는 회복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시기별로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며, 특정 시기에 급격한 상승 또는 하락이 반복되는 특성을 보였다.

회복력 경로별로 지역을 분류한 결과, Path 1에는 부산, 인천, 세종, 경기, 강원, 충북, 경북, 경남 등 8개 지역이 해당되며,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높은 수치를 회복하는 등 회복력이 높게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세종은 2019~2021년까지 음(-)의 값이 나타났으나 2023년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여 2024년에는 1.415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인천은 2022년에 -1.242로 가장 낮은 강건성 지수를 기록하였으나 2024년 0.528로 높은 회복력을 보였다. Path 2에 해당하는 지역은 광주 1개 지역으로 충격 이전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며 2019년 수치에 근접하게 회복하였다. 한편, Path 3에 해당하는 지역은 서울, 대구, 대전, 울산, 충남, 전북, 전남, 제주 8개 지역으로 충격 이전 수치보다 하락하여 붕괴경로를 나타냈다. 서울은 2019년에 양(+)의 값을 보였으나, 2020년부터는 음(-)의 값을 유지하다가, 2024년에 다소 반등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대구, 대전, 울산은 2019~2020년 양(+)의 값을 유지하다가 2021년 이후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타났다. 충남, 전북, 전남, 제주의 경우 양(+)의 값과 음(-)의 값이 반복되며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났다.

[표 5] 지역별 강건성 지수 분석

지역	연도						경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서울	1.583	-0.439	-0.675	-0.248	-0.533	0.312	Path 3
부산	-0.976	0.322	0.036	-0.762	0.824	0.556	Path 1
대구	0.858	0.373	-0.348	0.151	-0.615	-0.420	Path 3
인천	-0.424	1.025	0.278	-1.242	-0.164	0.528	Path 1
광주	0.956	-0.507	-1.114	-0.017	-0.055	0.736	Path 2
대전	0.832	0.932	-0.402	-0.530	0.086	-0.918	Path 3
울산	1.060	0.937	-0.053	-0.252	-0.684	-1.007	Path 3
세종	-0.656	-0.656	-0.656	-0.047	0.599	1.415	Path 1
경기	-1.427	0.628	-0.320	0.260	0.243	0.292	Path 1
강원	-1.445	-0.309	0.822	0.598	0.446	-0.112	Path 1
충북	-0.605	-0.682	1.023	0.914	-0.288	-0.363	Path 1
충남	-0.091	-0.844	0.143	0.278	0.768	-0.254	Path 3
전북	0.127	-0.207	0.209	-0.175	0.314	-0.267	Path 3
전남	-0.203	0.036	1.039	-0.625	0.216	-0.464	Path 3
경북	-1.543	-0.056	0.320	1.203	0.102	-0.026	Path 1
경남	-0.886	-0.262	1.050	-0.133	-0.042	0.274	Path 1
제주	-0.013	0.597	-0.011	-0.094	0.284	-0.764	Path 3

3) 자원동원성 지수

자원동원성은 위기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해결책을 찾는 역량으로 평균 시설투자비와 인력 채용 및 퇴직 수, 총 종사자 수를 가지고 산출하였다. 자원동원성 지수는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장기적인 침체 양상을 보였다. 2019년에는 모든 지역이 높은 양(+)의

값을 기록하며 자원동원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2020년부터 모든 지역이 음(-)의 값으로 전환된 후, 2023년까지도 일부 지역이 음(-)의 값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회복력 경로별로 지역을 분류한 결과, Path 1에 해당하는 지역은 부산, 대전 2개 지역으로 초기 하락 이후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부산은 2020년에 음(-)의 값을 기록한 이후 2023년에 양(+)의 값으로 전환되었으며, 2024년에는 2019년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이며 뚜렷한 반등을 나타냈다. 대전 역시 2023년까지 음(-)의 값을 유지하다가 2024년에는 1.066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여 매우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 Path 2에 해당하는 지역은 경기 1개 지역으로 2020년 급락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23년에는 양(+)의 값을 회복하였으며, 2024년에는 2019년 수치에 근접하게 회복하였으나 2019년 수치까지는 회복하지 못하였다. 한편 Path 3에 해당하는 지역은 서울,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4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등락이 반복되며 불안정한 하락 추세를 보였으며 2024년 수치가 2019년 수치 대비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6] 지역별 자원동원성 지수 분석

지역	연도						경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서울	1.215	-1.556	-0.079	-0.085	0.159	0.346	Path 3
부산	0.297	-1.168	-0.606	-0.059	0.711	0.824	Path 1
대구	1.050	-1.305	-0.208	-0.355	0.459	0.358	Path 3
인천	1.182	-1.394	-0.444	0.092	0.094	0.469	Path 3
광주	0.565	-1.190	1.053	-0.388	0.085	-0.124	Path 3
대전	0.688	-1.084	-0.162	-0.162	-0.345	1.066	Path 1
울산	1.691	-0.967	-0.171	-0.202	0.000	-0.351	Path 3
세종	1.110	-1.124	0.124	0.237	-0.331	-0.017	Path 3
경기	0.793	-1.512	-0.032	-0.704	0.689	0.766	Path 2
강원	1.510	-1.071	-0.096	-0.663	0.200	0.120	Path 3
충북	1.165	-0.661	0.133	-0.648	0.094	-0.083	Path 3
충남	0.987	-1.316	-0.323	0.568	0.166	-0.083	Path 3
전북	0.908	-0.577	0.255	-0.369	-0.258	0.041	Path 3
전남	1.417	-1.154	-0.187	-0.174	-0.013	0.111	Path 3
경북	1.012	-0.924	-0.551	0.464	-0.048	0.047	Path 3
경남	1.199	-1.341	-0.400	-0.275	0.461	0.357	Path 3
제주	1.168	-1.502	-0.326	-0.348	0.549	0.459	Path 3

4) 대체성 지수

대체성은 위기로 인한 기능 저하나 상실을 대체할 수 있는 역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온라인 거래가 가능한 사업체 수와 연간 이용객 수를 가지고 산출하였다. 대체성 지수는 신속성

지수와 유사한 V자형 반등을 보였으며, 2024년 기준 대다수 지역이 2019년 지수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하여 회복력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

회복력 경로별로 지역을 분류한 결과, Path 1에 해당하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2개 지역으로 급격한 하락 이후 빠르게 반등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들 지역은 2020~2021년에 하락세를 보였으나 2022년부터 회복세로 전환되었으며, 2024년에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강한 회복력을 보였다. Path 2에 해당하는 지역은 대전, 세종, 제주 3개 지역으로 충격 이후 하락하다가 다소 반등하여 2024년 수치가 2019년 대비 절반 이상으로 회복하였다. Path 3에 해당하는 지역은 광주, 울산 2개 지역으로 2019년에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나 충격 이후 급격히 하락한 후 점차 회복세를 보였으며, 2024년에는 2019년 대비 매우 낮은 수치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회복 수준을 보였다.

[표 기] 지역별 대체성 지수 분석

지역	연도						경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서울	0.603	-0.732	-0.892	-0.485	0.149	1.356	Path 1
부산	-0.060	-1.216	-0.979	0.231	0.758	1.267	Path 1
대구	0.680	-0.919	-1.421	0.018	0.555	1.086	Path 1
인천	0.555	-1.069	-0.870	-0.434	0.514	1.304	Path 1
광주	1.387	-1.318	-0.356	-0.629	0.450	0.466	Path 3
대전	0.711	-0.948	-1.082	0.484	0.128	0.707	Path 2
울산	1.231	-1.064	-1.019	0.037	0.502	0.313	Path 3
세종	1.210	-1.110	-0.713	-0.369	0.203	0.778	Path 2
경기	-0.099	-1.200	-0.752	-0.130	0.959	1.222	Path 1
강원	0.044	-1.200	-0.554	-0.026	0.966	0.770	Path 1
충북	0.013	-1.539	-0.384	0.154	1.073	0.683	Path 1
충남	0.245	-1.304	-0.860	-0.023	0.894	1.049	Path 1
전북	0.042	-1.041	-0.917	0.207	0.608	1.101	Path 1
전남	0.130	-0.974	-0.182	-0.133	0.462	0.697	Path 1
경북	-0.457	-1.301	-0.665	0.647	0.510	1.266	Path 1
경남	0.055	-1.367	-0.940	0.391	0.613	1.249	Path 1
제주	0.870	-1.898	-0.103	0.561	0.133	0.436	Path 2

2. 지역별 관광회복력 경로 분석

4R 지수별로 회복경로를 보면 Path 1은 신속성 지수에서 13개 지역, 대체성 지수에서 12개 지역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해당되어 위기 발생 시 빠른 대응과 더불어 대체 수단 확보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함을 의미한다. 회복력이 매우 낮은 붕괴경로인 Path 3은 자원동원성 지수에서 14개 지역으로 가장 많은

지역이 해당되었다. 종합하자면 신속성 지수와 대체성 지수에서의 회복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원동원성 지수에서는 회복력이 매우 낮은 붕괴경로를 나타내는 등 지수별로 뚜렷하게 회복 경로의 특징을 보였다.

지수별 경로 분류에서 3개 이상의 지수에서 Path 1에 해당된 지역은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경북, 경남으로 충격 이전의 수치를 상회하여 회복력이 매우 뛰어난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Path 3에는 울산이 3개 이상의 지수에서 해당되어 충격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붕괴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 8] 지역별 관광회복력 경로 분석

구분	신속성 지수	강건성 지수	자원동원성 지수	대체성 지수
Path 1 〈회복력이 높은 경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3개)	부산, 인천, 세종, 경기, 강원, 충북, 경북, 경남 (8개)	부산, 대전 (2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2개)
Path 2 〈회복력이 낮은 경로〉	울산, 충남, 제주 (3개)	광주 (1개)	경기 (1개)	대전, 세종, 제주 (3개)
Path 3 〈회복력이 매우 낮은 붕괴경로〉	대전 (1개)	서울, 대구, 대전, 울산, 충남, 전북, 전남, 제주 (8개)	서울,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4개)	광주, 울산 (2개)

V.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국내 관광산업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과 함께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관광산업의 회복 추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보다 시사점 있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Bruneau et al.(2003)이 제안한 회복력 측정 지표 4R, 즉 신속성, 강건성, 자원동원성, 대체성 지수를 가지고 국내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별 분석을 진행하였다. 산출된 지수를 가지고 하현상·이석환(2016)의 연구에서 제시한 회복력 경로 3가지 중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하여 유형화하였다. 분석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관광산업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우선 2015~2024년 10년간의 관광사업체 매출액을 가지고 코로나19가 실질적으로 국내 관광산업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부터 관광사업체 매출액이 급격히 하락하였고,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인 2023년에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 근접하게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2024년에는 일부 지역에서 2019년 수치를 상회하였으며, 지역별로 회복력의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권장욱(2025)의 연구를 참고하여 4R 지수별로 지역의 회복력 지수를 산출하였으며, Z-score로 전환하여 세부 측정 지표를 상호 비교하였다. 신속성 지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하락하였다가 종식된 2023년에 반등하며 크게 수치가 상승하는 V자형 회복패턴을 보였으며, 강건성 지수의 경우 일부 지역은 충격 이전 수준을 상회하였으나 상당수 지역은 여전히 침체가 심화되는 회복의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자원동원성 지수의 경우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침체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대체성 지수는 신속성 지수와 유사하게 V자형 반등을 보였으며, 대다수 지역이 2019년보다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하여 강한 회복력을 보이는 등 각 지수별로 상이한 특성을 나타냈다.

지수별 관광회복력 경로유형 분석 결과, 회복력이 높은 경로인 Path 1에서는 신속성 지수와 대체성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으며, 회복력이 매우 낮은 붕괴경로인 Path 3에는 자원동원성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관광산업이 전반적으로 위기 발생 시 빠른 대응과 대체 수단 확보능력은 상대적으로 우수하지만, 자원을 동원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능력은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회복력 경로 분류에서 해당 지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3개 이상의 지수에서 공통적으로 Path 1에 해당된 지역은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경북, 경남으로 이들 지역의 회복력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Path 3에는 울산이 해당되어 회복력이 매우 낮은 붕괴 지역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첫째, 기존 연구들이 단일 지표 또는 단편적 분석에 집중한 것과 달리 다차원 지표를 통합하여 지역 회복역량을 분석하고 이를 경로 유형으로 구조화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확장을 도모하였다. 기존의 단편적인 관광 통계에서 벗어나 4R 프레임워크를 관광산업 데이터에 적용하였으며, 지역 간 회복 양상을 단순한 수준 차이가 아니라 회복력의 경로로 유형화함으로써 회복력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규명하고 보다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신속성, 강건성, 자원동원성, 대체성이라는 다차원 지수를 통해 회복역량을 입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특정 지표에 강점을 가지더라도 다른 지표에서는 취약할 수 있는 이질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동일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수별로 상이한 경로에 속하는 경우가 존재하여, 회복역량이 단일 전략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역 회복력이 단순한 회복 속도가 아니라 구조적 안정성, 자원 활용 능력, 대체 가능성 등이 결합된 복합적 개념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회복력 개념을 정태적 수준 비교가 아닌 동태적 변화 과정으로 접근함으로써, 시간에 따른 회복 패턴 분석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표한 「관광산업조사」의 6개년 시계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례 없는 관광위기인 코로나19의 발생 이전과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다시 일상을 회복한 이후의 시점을 비교 분석하여 충격으로 인한 하락과 회복의 과정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실무적 의의는 지역별 관광 회복력 경로의 구조적 차이와 원인을 규명하였다는 것이다. 지역별 관광 회복력 경로 분석 결과는 팬데믹이라는 동일한 외부 충격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보유한 기초 인프라와

산업 구조에 따라 회복의 경로가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특히 이러한 회복경로의 차이는 각 지역의 관광산업의 구조, 대도시 인프라, 그리고 지자체 정책 대응 역량 등 복합적인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지역 간 격차와 이질적인 회복 매커니즘은 지수별 취약성을 보완하는 맞춤형 지역 관광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지수별 경로 분류에서 3개 이상의 지수에서 Path 1에 해당된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경북, 경남 지역은 우수한 접근성과 다양한 대체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위기 발생시 빠르게 비대면·스마트 관광으로 전환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어 두터운 배후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외부 충격을 빠르게 흡수하고 수요를 창출해 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지역은 이미 형성된 우수한 인프라를 가지고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고도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민간 중심의 관광벤처 육성, 위케이션 및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등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선도적 투자가 요구되며, 혁신 모델을 타 지방도시로 확산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이 요구된다.

반면, 3개 이상의 지수에서 Path 3에 해당되어 회복력이 매우 낮은 붕괴경로로 나타난 울산의 경우,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성으로 인해 위기 시 관광 생태계를 떠받칠 유연한 자원동원과 대체관광 기반이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되므로 산업관광, 해양레저 등 지역 고유의 산업 구조와 결합한 대체 관광 자원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역관광 생태계의 회복력은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충격을 견뎌내는 힘과 유연하게 대안을 찾는 역량의 복합적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지역별 회복 경로의 구조적 원인을 직시하고, 지방도시와 광역권의 이분법을 넘어 산업적 특성과 위기 대응 역량에 최적화된 회복력 강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술적, 실무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 자료의 한계로 인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산업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행정 지표 중심의 분석으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였다. 또한, 관광산업의 회복여부를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수치를 기준으로 2024년 수치와 비교 평가하여, 기준 시점 효과(Base effect) 발생의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통계적 지표를 통해 거시적인 회복 경로를 제시하였으나, 각 경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구체적인 정책 요인이나 지역별 특수 환경을 규명하지 못하였다는 한계 또한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의 구체적인 사례연구와 회귀분석 등을 통해 회복력 격차를 유발하는 결정적 요인을 심층 규명하는 정성적 연구를 추가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에 시계열 자료를 더욱 확보하여 추후 연구를 진행한다면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권장욱. 2025.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여행업의 회복력 분석: 2019~2023년 관광산업조사 데이터를 중심으로」. 관광진흥연구 13(1): 203-220.
- 김도훈·임창식·김남조. 2022. 「코로나19 이후 방한 외래관광자 수요예측: 개입 ARIMA 분석 및 회복탄력성을 활용하여」. 관광학연구 46(7): 75-96.
- 김동현·박두희. 2020. 「국가기반시설의 회복력 평가를 위한 4R 프레임워크 기반 정량적 평가 방안」.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12): 104-112.
- 김영근. 2018. 「도시의 재해회복력 평가모델 구축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재영·강연실·조부연. 2021. 「관광산업 생태계 회복력 평가지표 개발」. 한국항공경영학회지 19(2): 3-13.
- 김정남. 2017. 「항공사 아웃소싱 직원의 회복탄력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근무지유형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호텔관광연구 19(1): 158-174.
- 박민희. 2019. 「항공 객실승무원의 회복탄력성, 직무만족, 고객지향성 간의 영향 관계 연구」. 동북아관광연구 15(2): 27-46.
- 문화체육관광부. 2015~2024 각 연도. 관광산업조사.
- 이윤주·이애주. 2016. 「호텔직원의 감성지능이 회복탄력성과 집단응집력에 미치는 영향: 조직정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40(10): 171-187.
- 임석화·송주연. 2022.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지역 고용의 충격과 회복탄력성」.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5(1): 1-23.
- 전대욱. 2015. 「지역사회 복원력 측정 모델의 타당성 검토」. 지방행정연구 29(1): 201-224.
- 조원섭·박슬기. 2020. 「호텔종사원의 DISC 행동유형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Tourism Research 45(1): 249-263.
- 주민지. 2023. 「지역사회 재난 리질리언스의 구성요소와 관계에 관한 연구: 국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대한 근거이론의 적용」.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하수정·안예슬·김태환. 2014. 「도시 회복력 평가 지표의 개발과 적용」. 국토연구 81: 133-151.
- 하현상. 2013. 「재난관리 조직의 네트워크 효과와 탄력성」. 한국행정논집 25(4): 1055-1082.
- 하현상. 2014. 「지역사회 복원력의 구조적 관계 분석」. 지방정부연구 18(2): 241-268.

- 하현상·이석환. 2016. 「지역사회 리질리언스 제고를 위한 공공마케팅에 대한 탐색적 고찰과 행정학적 제언」. 한국자치행정학보 30(2): 101-137.
- 하현상·김종범·조경호·이석환·최진식·전대욱. 2014. 「지역사회 재난 리질리언스 연구의 비판적 고찰과 행정학적 제언」. 지역발전연구 23(2): 409-464.
- Bruneau, Michel et al. 2003. "A Framework to Quantitatively Assess and Enhance the Seismic Resilience of Communities." *Earthquake Spectra* 19(4): 733-752. (DOI: <https://doi.org/10.1193/1.1623497>)
- Burton, Christopher G. 2012. "The Development of Metrics for Community Resilience to Natural Hazards."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Dissertations.
- Cutter, Susan L. et al. 2008. "A place-based model for understanding community resilience to natural disasters." *Global Environmental Change* 18(4): 598-606. (DOI: <https://doi.org/10.1016/j.gloenvcha.2008.07.013>)
- Gera, Shweta and Ankit Kumar. 2023. "Sustainable Management of Cultural Heritage Site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25(1): 12-28. (DOI: <https://doi.org/10.1002/jtr.2552>)
- Holling, Crawford S. 1973. "Resilience and Stability of Ecological Systems." *Annual Review of Ecology and Systematics* 4: 1-23. (DOI: <https://doi.org/10.1146/annurev.es.04.110173.000245>)
- Howell, Nicholas R. 2011.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Resilienc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8: 210-225. (DOI: <https://doi.org/10.1007/s10464-011-9430-z>)
- Howell, Nicholas R. 2013. "Measuring the Impact of Cultural Capital on Disaster Recovery." *Disasters* 37(1): 45-62. (DOI: <https://doi.org/10.1111/j.1467-7717.2012.01298.x>)
- Mariolis, Theodore et al. 2021. "The Sraffian Multiplier for the Greek Economy." *Journal of Economic Structures* 10(1): 1-18. (DOI: <https://doi.org/10.1186/s40008-021-00234-y>)
- Martin, Ron. 2018. "Shocking Aspects of Regional Development: Towards an Evolutionary Understanding of Resilience." *Regional Studies* 52(11): 1530-1545. (DOI: <https://doi.org/10.1080/00343404.2018.1476255>)
- Martin, Ron et al. 2016. "How Regions React to Recessions: Resilience and the Role of Regional Economic Structure." *Regional Studies* 50(4): 561-585. (DOI: <https://doi.org/10.1080/00343404.2015.1135236>)
- Norris, Fran H. et al. 2008. "Community Resilience as a Metaphor, Theory, Set of Capacities,

and Strategy for Disaster Readines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1(1): 127-150. (DOI: <https://doi.org/10.1007/s10464-007-9156-6>)

Sharma, Gaurav et al. 2021. “Reviving Cultural Resources in the Post-Pandemic Era.” *Sustainability* 13(9): 4500-4520. (DOI: <https://doi.org/10.3390/su13094500>)

Tierney, Kathleen and Michel Bruneau. 2007.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Resilience: A Key to Disaster Loss Reduction.” *TR News* 250: 14-17.